

## 45年間 나의公私生活에 대한回顧(4)

조 용 준\*

### 28. 家畜衛生試驗所長 時節(1972~1989)

언제 물러나도 좋다는 마음을 굳히고 나니 불안하고 착잡한 감정도 다소안정 되어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던 어느날 內務와 殖産局長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家畜衛生試驗所長으로 갈 수 없겠느냐는 打診이었다. 사표를 낼 것이냐, 동의할 것이냐 두 갈래 길에서 한참동안 망설이고 있으니 兩局長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줄 것을 종용하면서 모든 여건이 복잡한 형편이니 일단 자리를 옮기고 다음에 捲土重來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慰勞의 말도 부언하였다. 고마웠다. 梁知事赴任 4년간 그 많은 일들에 情熱을 바친 지난날을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줄줄물었다. 課員들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볼일이 있다하고 귀가해서 가인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말했더니 많은 위로를 해주었다.

71년 12월 24일 職務代理로 發令이 났다. 몇몇 職員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課長에게 무슨 큰 責任이 있어 죽어라고 일만한 사람의 대접이 이러냐고 위로를 해주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張鎭淑所長이 職位解除되고 그 자리로 赴任하니 이중삼중의 고통이다. 張所長의 문제는 나와는 전연 상의가 안된 일이니 내 입장이 난감하였다. 張所長을 대할 면목도 없고 할말도 없었다. 내 후임에는 金容大用

途係長이 昇進되었다. 12월 25일 첫 出勤해 보니 事業係長은 空席이고 庶務係長은 金珪琮氏이었다. 담장도 없는 허허벌판에 본관과 부속건물 일부만 있고 前庭 일부는 埋立되지도 않았고 본관옥상에 철근이 노출되어 보기도 흉하고 시험실 짜임새도 문제고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손쉬운 일부터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 ○ 試驗研究事業 強化

原因不明으로 斃死한 축우의 사인규명이 시급하였다. 1968년 金陵郡 禦悔面에서 畜牛가 뚜렷한 前驅症勢도 없이 發病後 8~12時間 以前에 斃死하여 被害頭數가 70~71년 2년간 16頭に 達하여 病性鑑定結果 中毒死로 推定하였으나 慶大農大 獸醫學科는 中毒死로 推定할 수 없다는 見解였으므로 正確한 斃死原因糾明이 急先務이었다.

道에서는 試驗飼育用 畜牛 3頭를 被害地域에 入殖 管理하고 있었으나 異狀을 發見치 못하였고 農水産部에서는 家畜衛生研究所와 大學教授로 調査團을 構成하여 多角的으로 死因을 糾明하려고 노력한 바 靑酸中毒으로 推定한다는 調査結果가 報告되었다. 그 以後 被害地域이 散發的으로 擴大되어 斃死頭數는 增加하였다.

當時 身上의 事情으로 慶大 金和植 病理學 教授가 집에서 쉬고 있어 本所가 推進하고 있는 畜牛幣

\*前 경북가축위생시험소장

死原因糾明의 지도를 의뢰한 바 꽤히 동의하여 공동으로 약 6개월의 刻苦 끝에 水銀中毒으로 판정되어 大韓獸醫學會에도 보고하고 水銀製劑農藥의 생산중지를 農水産部에 建議도 하였다. 金教授의 指導를 받아 共同研究를 隨行한 成果는 畜牛幣死原因糾明外에 研究職이 의욕적으로 試驗研究事業을 추진하게 되었고 大學과의 紐帶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그 후 매년 1~2題目式 大韓獸醫學會에 보고도 하고 學會誌에 投稿도 하였다.

韓牛고사리中毒의 發生例, 豚의 Perirenal edema에 관한 研究, 乳牛의 窒酸鹽中毒試驗研究結果등을 학회에 보고한 바 있고 酪農業의 伸張에 따른 絞소 乳房炎 診斷事業을 1982년부터 실시하고 1983년에는 絞소乳房炎診療센터를 설치하여 원인균의 분류와 抗生劑 耐性試驗을 실시하고 畜主에게 치료약제를 選擇 通報해 주므로서 乳房炎 治療效果 提高에 힘쓰고 1986년에는 全國 家畜衛生試驗所中 최초로 主要家畜傳染病 血清抗體力價調査를 하여 Vaccine 接種의 適正時期를 畜主에게 通報하므로서 效果의인 家畜疾病豫察事業에 一助가 되었으며 組織培養을 병행하여 病毒性傳染病의 신속한 진단을 도모하였다.

1987년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만연한 토끼 集團幣死의 原因規明과 豫防對策을 확립하여 전국 36개 가축위생시험소의 모임인 韓國家畜衛生試驗研究會 제12차 學術發表會에서 優秀論文으로 선정되어 表彰牌과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또한 1984년 本道施策事業으로 故 金榮大 畜政課長 재임시 道費 8,000 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絞소 受精卵 移植事業으로 미국에서 기술을 研修받고 온 獸醫師를 契約職으로 임명하여 種畜場에서 1년 6개월간 시험사업으로 수행할 때 본소 職員을 種畜場에 1년간 派遣 專受받도록 하여 種畜場 事業으로 종결한 후 裝備一節을 管理移轉을 받아 1987년부터 移植事業을 實用化하여 高能力絞소의 조기개량과 量産體制를 확립하였고 1987, 88년 家畜衛生試驗研究會에 발표한 바도 있었다.

이와같은 시험연구소 사업에는 검직연구관으로

항시 지도를 받은 慶大獸醫科大學 李且秀教授를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의 지도도 많이 받았다.

1977년부터는 전국 각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의 사업결과 발표회가 년초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어 시험연구사업이 점차로 자리를 굳히고 1978년에 가축위생시험연구회가 발족하고 매년 각시도가 輪番制로 研究會를 주최하여 현재까지 12회가 개최되었고 研究會가 주관하는 발표회까지 활발하게 됨에 따라 이중발표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가축위생연구소의 사업결과 발표는 1986년부터 없어졌으나 연구소의 역할은 가축위생시험연구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였다.

1989년부터는 優秀論文褒賞制度를 실시하게 되어 각시도가 명예를 걸고 試驗研究事業에 힘쓰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大學院 碩, 博士 課程履修中에 있는 研究職爲主의 發表 傾向이 있으니 全體研究職이 參與해 주기 바라고 研究方向도 家畜의 飼育, 衛生管理 및 改善에 直結되는 題目이 選擇되고 優秀論文 審査課程에도 畜産經營改善의 寄與度도 考慮되었으면 한다.

#### ○ 施設 試驗裝備 擴充과 環境改善

本所가 壽域洞에서 현위치인 農業센터로 이전된 것이 1970년이었다. 赴任當時 本館은 이층으로 설계되었으나 단층으로 지었으며 이층 계속공사가 용이하도록 일층 옥상에는 철근이 1.5~2m식 기둥부위에 露出되어 雨期에는 鐵筋을 타고 빗물이 漏水되고 美觀上도 좋지 못하였다.

附屬建物は 解剖室, 試驗動物舍, 西便倉庫와 車庫가 있었고 正門과 담장은 없어 허허벌판이고 東便 現在 獸魂碑와 正門 사이는 盛土를 얹어 2m 程度 陷沒 狀態였고 庭園樹는 壽域洞에서 移植해온 히말라야시다, 銀杏, 라이락과 이전 후 식재한 胡桃나무가 5本 정도 되었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 당년도 시설예산은 없으니 우선 未盛土 陷沒部位의 盛土作業에 着手했다.

土源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듯이 그해

原種場 논바닥을 낮추는 작업이 있어 논흙을 土源으로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작업하였다. 耕轉機와 리어카로 운반하여 약 1주간 오후작업으로 성토를 끝냈다. 힘겨운 일이었다.

73년 예산에 정문과 담장 시설비를 요구하였으나 재원관계로 예산책정이 안되고 위선 庭園樹植栽를 서둘렀다. 大邱農高에서 분양도 받고 知面이 있는 농장에 가서 협조도 받아 73년부터 85년까지 년차적으로 정원조성을 불과 20만원의 庭園樹 購入費 豫算으로 林業試驗場, 治山事業所, 大邱農高, 道路管理事業所, 原種場의 協調를 받아 직원들이 땀 흘려 精誠껏 심고 가꾸어 숲을 조성하였다.

正門과 담장은 4차년도 部分 繼續工사로 1983년에 완료했다. 담장이 완성되기까지 생나무담장의 樹種을 두 번 갱신하였다. 처음 정문은 側栢 3面(東西北)은 탕자나무로 植栽하였으나 탕자나무가 미관상 별로 좋지 못하여 治山事業所에서 砂防用 리기다소나무를 분양받아 갱신하였다.

담장 공사시는 직경이 7~8cm 정도로 성장한 리기다소나무를 잘라 庭園樹移植할 때 支柱木으로 활용하였다.

廳舍正門에 들어서면 右側(東便)에 있는 獸魂碑는 碑名이 “어려짐승의 넋을 달래는 비”라 하고 自然石 臥碑에 陰刻했고 碑文은 “動物은 우리 人類에게 이마지한 공이 지대하며 獸醫畜産人에게는 더욱 많은 희생을 해주고 있다. 깊이 감사하며 그 혼을 달래기 위하여 이 碑를 건립한다”라고 銅版에 陽刻하여 坐台에 固定했다. 所要 資金은 農村振興廳 산하 優秀機關 施賞金 30만원과 직원의 努力 그리고 不足豫算은 宿直費와 機關運營에 관공비로 充當하여 1979년 5월 4일 竣工 除幕하였다.

邱安國道에서 試驗所까지의 進入路는 1985년에 鋪裝되어 있는데 명색이 道機關이 2개소나 있는데 進入路 鋪裝을 해주기 바라는 建議를 몇 次例했으나 허사로 끝나고 大邱直轄市로 編入된 後에는 繼續 北區廳에 協助要請했으나 번번히 豫算事情으로 鋪裝을 못한다는 回示였으나 포장되었다. 읍, 면, 동의 부락진입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1985년

에야 國憂洞까지 2次年計劃으로 鋪裝하였고 前後庭 鋪裝工事는 1984~1988년까지 5주년 繼續事業으로 1988년 12월에 工事が 완료되고 1986년에는 直轄市 編入惠澤을 입어 上水道도 引入하였으니 機關으로 體面이 서게 되었다.

테니스 코트는 1981년 種畜場의 트럭과 경운기를 받고 직원의 인력과 몇사람의 인부를 투입하여 簡易코트를 조성하였으나 코트面이 많이 流失되어 86년에 補修하고 前後庭 鋪裝費 豫算을 確保하여 부력을 갈아 훌륭한 테니스場이 되었다.

二層 增築工場費 豫算을 4~5년 繼續 要求했으나 확보치 못하고 不得已 施設은 爲先 漏水를 막기 위해 노출철근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미관상도 좋아졌고 누수도 막았다.

本館 內部構造도 많이 變更하였다. 現在 一層의 防疫, 檢査 1係와 試驗室 中間에 있던 暗室과 顯微鏡室을 확장하기 위해 철거했고 사무실과 시험실 사이를 透視形態로 개조하였다. 剖檢室도 북측에 별로 쓸모없는 接種試驗動物 飼育室이 두칸이던 것을 헐어서 부검실을 확장하고 受精卵研究室은 불필요한 西便 中間複道를 막아 조그마한 연구실을 꾸며 옮겼고 검사2계 사무실도 중간통로를 헐어내고 사무실을 확장하였고 解剖室 뒤에 있는 燒却場은 당초에 解剖室 앞에 있는 것을 1983년 보수할 때 뒷편으로 移設했더니 本館 後庭의 雰圍氣가一新되었다.

試驗裝備도 늘어나고 1979년 9월에 本所機構가 擴張되어 증원도 되고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내무부의 1980년도 地方交付稅 補助 2,700만원, 道費豫算 2,700만원 계 5,400만원을 확보하여 2층 98명을 증축하였고 그해 용량이 부족하고 老朽한 내외선 電氣工事와 暖房施設도 溫水보일러로 改替하여 그해 12월 28일 농업 센터내 機關長과 축산인을 초청하여 조출한 增築竣工式을 가졌다.

2층에는 회의실, 소장실과 시험실로 사용하고 있다. 시험실에 암실을 설치하였으나 무균실은 예산 부족으로 설치 못하고 1985년에 簡易無菌室을 설치했으나 細菌培養을 시작해 보니 시설의 보완이 시

급한 실정이고 시험실과 사무실 사이에 벽을 쌓아 구획이 되고 말았다. 透視型으로 改造를 하여야겠다. 爲先 출입문 문짝 상단부에 유리를 끼웠더니 霧園氣가 많이 바뀌어졌다. 시험장비도 매년 2~3종 정도 확보하였으나 高價試驗裝備인 超高速遠心分離機와 化學分析裝備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會議室은 세미나 개최, 각종회의, 축산인과의懇談會 開催場所로 活用도가 높다.

#### ○ 日本의 家畜衛生研究會 參席(1975)

日本 農林省 초청을 받고 1975년 1월 18일~1월 27일까지 家畜衛生研究會에 參席하고 1977년 3월 30일~4월 8일까지는 日本獸醫學會招請을 받아 연구회와 학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家畜保健衛生所와 家畜衛生試驗張을 두루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당시는 해외출장이 매우 힘들 때였다. 도의 해외 출장심의를 거쳐 內務部의 승인을 받아 外務部에서 여권이 交付되면 日本大使館에서 入國査證을 받아야 하는 諸般手續節次가 복잡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이 나온 날은 긴장이 풀리니 波勞가 急作이 몰아닥쳐 氣盡狀態였다.

航空券을 豫約하고 다음날 金浦空港保稅地區에 들어서니 일본에 도착한 느낌이였다. 이륙후 福岡空港着陸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정도에 불과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신호등, 가드레일, 농촌풍경등이 우리나라 중소도시와 거의 비슷하여 외국에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개최지인 鹿兒島市까지 日本國內航空便을 이용했다. 研究會開催場所가 家畜衛生試驗場九州支場이었고 全國 202개 家畜保健衛生所에서 1974년에 수행한 試驗研究事業報告會로 發表演頭는 37개 演頭였고 細菌, 病毒, 寄生虫, 繁殖障害等 分野別로 나누어 演者는 성실하게 보고했고, 내용도 충실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謹聽하는 態度가 매우 眞摯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수준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회가 끝나고 20일부터 9일간 家畜保健衛生所와 家畜衛生試驗場, 縣의 畜産課, 農林省畜産局, 乳業體, 全國農業共濟組合聯合會家畜診療所,

牧場, 農家, 日本獸醫師會 등을 走馬看山格으로 두루 방문했다. 家畜保健衛生所設置年度는 우리나라보다 3년 앞선 1950년이었고 설치후 년차적으로 증설하여 1964년에는 585개소에 달한 것을 1965~1970년 5개년계획으로 현당 1개소의 中央家畜保健衛生所와 3~4개소의 支所로 統廢合되어 202개소로 조정하여 시설, 시험장비의 평준화를 기하여 수준을 향상시켰고 生化學試驗, 還境衛生檢査, 病毒性疾患試驗裝備(細胞培養)를 確保하고 機構는 各縣의 實情에 따라 管理, 衛生, 檢査 3課外에 病性鑑定課가 있는 縣도 있었다.

主要事業은 家畜衛生技術強化事業으로 畜産關係團體長의 協議會開催, 獸醫師 畜産技術者를 對象으로 疾病對策能力向上, 畜舍環境, 防疫, 衛生에 관한 研究會, 市町村農協 共濟, 開業獸醫等 縣機關의 巡廻指導, 屠畜場, 食鳥處理場을 對象으로 家畜疾患發生調査事業과 人工受精技術教育, 受精所立會檢査指導, 空胎防除事業, 그리고 放牧衛生, 動物藥事와 畜産經營, 環境保全綜合對策, 環境汚染防止要領指導에 注力하고 防疫課는 檢診, 抗體力價調査, 重要傳染病發生時 緊急防疫對策本部를 設置하여 初動防疫에 徹底를 期하고 畜産農家を 組織化하여 衛生管理技術指導와 自衛防疫, 畜産物品質向上을 爲한 指導 및 檢査, 畜産經營指導와 各種豫防接種, 畜舍消毒, 家畜衛生에 관한 研鑽會 및 講習會開催, 蓄産物生産出荷時 農藥 抗生物質殘留汚染, 與否調査를 하고 檢査課는 自體病性鑑定과 支所依賴可檢物 病性鑑定을 管掌하고 있었다.

家畜衛生試驗場은 本場이 東京都小平市에 있고 5個支場 즉 北海道, 東北, 北陸, 九州 그리고 鷄病支所를 두고 本場에 企劃室, 總務部, 研究第 1, 2, 3, 4部와 馬匹傳染性貧血研究部の 1室6部가 있고 本支場人力은 335명에 달하고 重要事業概要는 育成牛에 多發하는 呼吸器 및 消化器系傳染性疾病的 防除, 牛白血病的 病理學的檢索, 피로프라스마病 凍結豫防藥開發, 소의 住血性微生物에 의한 疾病的 病理, 乳房炎의 性혼몬을 中心으로 한 發生原

因, 고사리中毒發生實態, 臨臨診斷, 治療, 發生病理, 原因物質分離, 폐지膿瘍各型發生의 分析, 豚코레라바이러스의 大量培養, 닭 傳染性코라이자豫防藥改良等 生産性이 있는 研究事業이 活潑하게 遂行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縣, 道の 畜産課는 農政部(局)에 소속된 기구로 庶務, 草地開發, 生産, 衛生, 經營, 畜産振興公社, 牧場建設指導等 8係로 定員은 29~30名이 되고 北海道는 農務部에 畜産課와 酪農草地課의 2個課가 있고 畜産課에는 畜産經營, 中小家畜, 肉牛振興, 管理, 畜産其他 家畜防疫, 衛生指導係等 7係와 酪農草地課에는 牛乳製品, 酪農經營, 管理, 電氣導入, 草地計劃, 公共草地, 團地草地, 公社牧場, 自給飼料, 新酪農村建設係等 11係로 되어 酪農, 肉牛分野에 力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市町의 保健所의 保健豫防課長에는 獸醫師를 任用하고 還境衛生, 食品肉乳衛生, 屠畜衛生, 人獸 共染病對策으로 Echinococcus, 광견병 방역, 弊獸處理場의 대책을 장악하고 있다. 光復前 道警務部 偉生課에서 管掌하고 있던 獸醫行政이 縣, 道에는 衛生課 市, 町에는 保健所에서 擔當하고 있었다.

北海道江別市에 있는 町村農場을 訪問했는데 牧場開設年度가 1925년으로 50년이 經過한 歷史가 있는 목장이었다. 飼育規模는 유우가 150두 搾乳量은 頭當 平均 7,000~8,000kg 最高 10,000kg으로 分娩間隔은 13~15개월이고 繁殖障害防止策으로 健脚(充分한 運動)과 充分한 粗飼料給與等에 注力하고 피부손질은 電氣부러쉬를 사용하고 미끄럼防止用 고무매트使用과 깔집을 충분히하고 生産犢管理는 哺乳, 難乳後, 初妊까지의 能力低下防止를 위해 飼育管理에 萬全을 기하고 初妊前 암송아지 出荷는 一切 없고 殖殖候補基礎牛는 牧場自體에서 後代 能力檢定을 畢한 것을 保有하고 있었다. 우리 道의 酪農牧場經營者가 參考할 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酪農地帶患畜治療 및 人工受精에 있어서 患畜診療와 人工受精은 農業共濟組合聯合會에서 專擔하고 診療費는 無償이고 往診時 車輛에 所要되는 經

費만 畜主가 負擔하며 人工受精은 頭當 4,400원을 받고 있었다. 診療所의 運營費는 共濟金으로 充當하고 共濟契約金은 乳牛評價額의 20~30%이고 例外로 高等登錄牛는 評價額의 80%를 適用하고 있었다. 診療施設은 完璧하였고 病理臨床補助診斷에도 疎忽함이 없었다.

우리나라 酪農初創期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乳牛診療와 人工受精을 했으면 酪農發展에 많은 기여가 있었으리라는 아쉬운 생각도 했다. 北海道の 牧場規模를 보고 九州地方의 水田酪農과는 너무나 규모가 크고 日本은 섬나라라는 固定觀念이 바뀌었다. (參考資料: 行政管轄地域-47個, 都·道·府·縣 全國獸醫師數 21,415名)

#### ○ 日本獸醫學會參席 (1977)

日本獸醫學會長의 招請狀이 나오기까지는 東京大學에서 客員教授로 日本에 滯留中인 慶大李且秀教授가 積極的으로 周旋하고 1973年 在來家畜調査研究를 共同으로 遂行한 同大學 農學部 獸醫學科의 望月教授가 招請을 推進했다. 1977年 3월 29日 學會開催 하루 前日에 出國했다. 羽田空港에 着陸하니 ฝน이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봄비답지 않게 제법 굵었다.

택시 乘車場에서 비를 맞은 채 次例를 기다려야 했고 東京大學앞에 下車하여 물어물어 農學部獸醫學科에 當到하여 望月教授의 研究室門을 노크했을 때의 내 모습은 旅行用 大形蓆은 들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흐르고 코트, 신발도 빗물에 흠뻑 젖었으니 보기에 처량했을 것이다.

望月教授는 반갑게 맞아 주었고 따뜻한 日本茶를 한 잔 들고 나니 精神이 돌아오는 듯했다. 다음날 李且秀教授의 案内를 받아 시부야에서 電鐵을 타고 麻布大學所在地인 淵野邊市에 到着했다. 所要時間은 약 90분이었다. 학회장에 도착하여 등록하므로써 日本獸醫學會員이 되었다.

發表講演題目數는 390題目이 되고 發表會場은 微生物, 病理, 臨床寄生蟲, 公衆衛生, 解剖, 臨床繁殖, 生理, 藥理, 家禽疾病學等, 10個分野別로 發

表하고 심포지움도 微生物과 公衆衛生學分科會別로 開催하는 外에 關聯集會와 協議會, 研究會 등 3日間 繼續되는 獸醫學分野의 大祝祭였다. 最優秀論文發表者의 學會賞受賞式과 受賞者講演會도 受賞式場에서 開催되었다.

學會賞受賞者는 學會會員으로서 最大의 榮光이며 그 審査도 매우 嚴格하다고 들었다. 學會 첫날 正午부터 1時 사이에 理事會가 있었고 學會의 招請을 받아 參席했으니 理事會에 參席하여 人事를 해달라는 連絡을 받고 參席했다.

日本獸醫學界뿐 아니라 世界的으로 알려진 學界의 重鎮이 약 50명 會場을 메우고 있었다. 司會者로부터 紹介를 받고 人事를 할 次例가 되었다. 緊張 탓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더듬거리다가 겨우 끝을 맺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얼굴에서 불을 퍼붓는 듯 했다. 행여 失手로 故國에 누를 끼치지나 않았을까. 學會理事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몹시 不安한 時間이 흘렀다. 열자리에 있던 望月教授가 “趙所長 緊張을 푸시오”라고 慰勞를 해주었다. 도시락으로 會食을 한 다음 나는 退場하고 理事會는 進行되었다. 午後에도 끝까지 여러 發表場에서 講演을 들었다.

發表者나 追加發言 또는 質疑者의 禮節바른 態度가 매우 印象的이었다. 追加發言者나 質疑者는 어김없이 훌륭한 講演을 고맙게 들었다고 敬意를 표현한 다음 發言을 하고 發表가 끝난 演者도 傾聽해 주시어 고맙다는 말을 한 다음 下壇했다. 國內學會에서 간혹 自己誇示의 場으로 錯覺하고 있는 發言者를 目擊한 바 있는 나는 얼마나 그 雰圍氣가 禮節바른지 拍手를 보내고 싶은 心情이었다. 학회개최중의 麻布大學內를 두루 돌아 보았다. 수의과대학외에 병설단과대학과 高等學校가 있어 學校의 規模나 諸般施設이 훌륭하고 大動物中 馬匹의 診療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草地와 馬場까지 確保하고 있었다.

學長인 越智勇一博士도 訪問했다. 越智博士와의 만남은 세번째가 된다. 光復直後 敗戰國民으로 軍政廳家畜衛生研究所에서 만났을 때와는 풍기는 人品이 全然 曄사람을 對하는 듯했고 1968년 韓日國

交正常化後 來韓하여 慶北大學에서 獸醫學과 畜産이라는 演題로 講演도 했고 試驗所가 壽城洞에 있을 때 訪問한 적도 있었다. 學會가 끝나고 日本獸醫學會의 周旋으로 殘留農藥研究所와 家畜衛生試驗場을 視察했다. 殘留農藥研究所는 殘留農藥이 公衆衛生과 生態界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는 機關으로 諸般試驗裝備를 超現代式으로 完備하였고 研究陣容들이 젊고 깊이있는 研究에 몰두하고 있는 光景을 보고 깊은 感銘을 받았다. 農藥施用量이 나날이 增加되고 있는 우리나라 實情에 비추어 이런 研究機關이 하루빨리 設置되기를 바라면서 臼井이라는 젊은 博士와 내가 겪은 中毒被害에 關한 意見을 交換했고 많은 參考資料도 받고 歸國後에도 書信交換도 하고 때때로 中毒에 關한 貴重한 文獻도 우송해 주었다.

家畜衛生試驗場은 두번째 訪問이었다. 筑場學院研究團地移轉準備로 어수선한 때였으나 印象 깊었던 일은 학회에 참석한 회원과 동창관계이거나 과거 시험장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交分에 따라 학회를 끝내고 시험장을 방문하고 그 고장의 명산물을 준비해와서 담소하면서 즐겁게 나누어 먹는 정다운 광경을 여러 연구실에서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국엿을 맛보았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엿이 아니고 캔디맛이 가미된 듯했다. 九州地方의 명산물인데 한국사람이 일본에 가서 처음 만든 것이 개량되어 그 지방의 명산물이 된 듯함) 다음날은 日本知性的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東京大學 캠퍼스를 두루 돌아보았다. 규모가 龐大했고 정원은 원대림과 같이 거목이 숲을 이루어 울창했다.

그 유명한 교문(赤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厚生館에는 免稅書店이 있어 시중보다 10%정도 저렴했다. 필요한 전문서적 몇권을 구입했다. 東京大學移轉反對와 學長排斥데모를 하는데 그야말로 평화적인 데모였다. 대강당앞에 야외용 텐트 밖으로 나와 휴대용마이크로 移轉反對스피치를 하고 한참 쉬었다가 다음 打者가 나와 계속했다. 장기적인 포진이였다. 工科大學앞을 지나가니 뼈라를 뿌리는데 내용은 公害産業追放檄文이었다. 시위

학생은 열을 올리고 있는데 듣는 측은 냉담해 보였다.

두 차례 일본여행을 끝내고 그 소감을 정리해 보면 (1) 日本家畜衛生研究機關의 研究事業進行狀況이 公衆衛生과 畜産振興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많은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2) 家畜衛生保健所의 機能도 業務가 多樣하고 畜産經營農家와 密着된 經營과 家畜衛生, 畜産經營技術指導等 教育이 家畜保健衛生所가 주축이 되고 있고 (3) 식량의 자급향상을 위한 酪農振興은 전국적으로 畜産重要施策으로 추진되고 1973년말 全國乳牛頭數가 1,777,000頭였으며 最盛期인 1971년말에는 1,856,000頭に 달했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乳房炎豫防, 繁殖障害牛의 診療, 人工受精, 患畜治療事業等 技術指導와 施術의 科學化 그리고 責任施術을 하고 있으며 특히 哺乳犢牛와 育成犢牛飼養管理에 많은 投資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施策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책면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초지 조성, 자급사료증산에도 정부의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4) 일반적으로 국민이 검소하고 실리적이며 친절한 국민임을 재인식했고 도시락 접대는 접대를 받는 측도 부담없이 좋고 접대를 하는 측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쌍방이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5) 일본의 가족묘지제도는 화장하여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묘제다. 농촌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묘지는 마을 입구 또는 다소 거리를 두고 모씨 가족묘지라 조그마한 비석이 서 있고 石室을 만들어 가족대대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었다. 묘지소요면적은 4~5평에 불과하고 대대로 한곳에 유골을 안치하니 관리도 간편하고 성묘하기도 좋을 듯하였다. 崇祖思想이야 美風良俗이지만 국토가 협소하고 명당은 조상의 묘지가 되면 임야의 이용도는 년년이 감소되고 더욱이 초지조성은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1968년 뉴질랜드에서 온 초지조성전문가가 밀하기를 귀국의 초지조성 적지는 조상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가용면적이 년년이 감소되고

축산업의 경영이 문제가 된다고 슬회한 적도 있었다. 儒家나 基督教은 埋葬爲主이나 佛家에서는 火葬을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점차 계몽도 하고 국유지에 시범납골묘지를 만들어 저렴하게 분양하는 제도도 좋고 납골묘지희망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권장하는 제도도 좋겠다.

수십년 수백년된 조상의 묘소를 찾지 못하는 후손이 늘어난다고 한다. 객지에서 1년에 한두번 성묘하게 되니 임야에 수목과 야생초가 울창하여 조상의 묘소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豪葬墓地도 문제다. 제충간의 위화감이 생길 뿐 아니라 사용면적도 과다하다. 20여년전 주간지에 부산지방모씨의 선대호장묘지가 소개된 일이 있는데 묘소주위의 石物은 왕릉을 방불케 하고 시체 안치소에 에어컨장치를 했다는 것이다. 호장묘지가 崇祖의 최선책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6) 일본자랑만 늘어놓았는데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물가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임을 알게 된다. 경제적인 불황이 세계적인 현상이며 물가고는 일본이 매우 극심하였다. 그 사례를 들면 음식값, 의류, 잡화등은 우리나라의 그 배가 되고 交通費(航空料, 鐵道費, 택시料金)는 3~4배가 되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심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피부로 느꼈다.

### ○ 3個支所 設置

北部支所는 1972년 國費補助 2,000만원 道費 3,000만원을 확보하여 안동시유지 446坪에 本館과 部屬建物を 新築하고 1973년 7월에 開所했다. 초대소장인선은 전문직우수인력확보를 위해 家畜衛生研究所에 근무하고 있는 본도출신 연구사중에서 적임자를 발탁할 계획이었으나 희망자가 없어 板時煥연구사를 내정했는데 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승진전형시험에서마저 경쟁자인 郭守東係長에게 苦杯를 마시고 얼마간 본소에서 근무하다가 사퇴했다.

北部支所가 설치된지 16년이 지난 오늘 機構, 人力, 試驗裝備, 業務量이 늘어나 사무실과 시험실이

협소한데다가 接道區域으로 增築이 불가능하여 가건물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원이 없어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에 사유지를 차지하지 말고 敷地를 買入하여 新築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 北部支所는 位置選定, 建物設計, 人選等 結果的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北部支所의 실정이 반영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여 제자리를 잡기를 바랄 뿐이다.

東部支所는 1981년 廳舍新築費 9,000만원 試驗裝備購入費 2,800만원 敷地買入費 2,000만원 합계 13,800만원(國費補助 3,000만원)을 확보하여 慶州市隍城洞에 敷地 900坪을 買入하여 諸般施設과 裝備를 갖추어 1982년 4월에 개소했다. 北部支所設置所要豫算의 약 3배가 投資되었고 과거의 貴重한 경험을 교훈삼아 敷地買入을 서둘렀다. 豫算額이 坪當 1만원으로 適地選定에 隘路가 많았다.

市內適地는 8~10만원(坪當) 呼價하니 買入을 포기하고 月城郡 農村指導所 敷地에 私有地 일부를 買入하여 新築할 계획도 했으나 慶州市 觀光牛市場 南側 耕地를 坪當 1만원에 買入하고 農地轉用承認을 얻고 設計 着工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소요되어 1982년 2월에야 完工했다. 道路未開設로 假道를 사용하는 불편도 겪었고 주변경지를 地主가 盛土를 목적으로 慶州市 生活汚物廢棄場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심한 악취와 파리에 시달렸고 地表水가 쓰레기에 극도로 汚染되어 시험사업 수행에 지장이 많았다.

시험실도 협소하고 주변일대가 공장지대로 조성되어 공장건설이 한창이고 신설공장의 지반과 도로가 시험소지반보다 약 2m 정도 높아 去年 하절 강우기에는 침수피해도 겪었다. 工團入住希望業體가 현보유 면적의 160%가 되어 공장소요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니 東部支所는 조만간 移轉해야 할 형편이다. 補償費로 建物の 新築은 가능하니 적당한 위치에 있는 道有地를 확보하여 移轉新築되기 바란다.

西部支所는 尙州市 外畚洞 所在 市有地 1,214坪을 買入하여 本館 建坪 100坪規模로 新築하여 開所

를 서두르고 있다. 總投資規模는 47,700만원이고 國費補助는 5,000만원이다. 買入한 市有地에 家屋 1棟과 搗精工場이 있어 撤去하는 과정에 補償金 策定이 難題였다. 迂餘曲折 끝에 家屋는 補償合議가 되어 撤去하고 88년 10월에 着工하여 89년 2월에 본 관공사는 완료되었으나 搗精工場은 鑑定機關의 再鑑定을 받고 工場主와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니 附屬建物과 舍宅新築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다. 諸般工事가 완료되고 造景도 하게 되면 위치나 시설면에서 손색없는 시험소가 될 것이나 문제는 전문인력의 확보라 하겠다. 신규임용자의 계획적인 연수교육이 뒤따라야 하겠다.

## 29. 家畜衛生試驗所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俗談이 있다. 나는 所長으로 勤續한 년수가 강산이 두 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 되었다. 廳舍 안과 밖의 시설과 그 많은 장비, 정원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리고 고생하는 우리 시험소가족, 어느 하나 애정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家畜衛生試驗所의 무궁한 발전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미흡하고 허물도 적지 않지만 재임중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무진 노력했다. 인력과 시설 그리고 모든 장비는 百年大計임을 강조해 왔고 또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인사에는 정실과 금력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適材適所의 人材登用과 먼 앞날을 통찰하는 人事이어야 하고 시설에 한치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니 施工業者와 야합하면 나라와 겨레에 죄인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능력있는 인재와 완벽한 시설을 구비해도 시험장비가 부실하면 고유의 기능을 발휘 못하니 시험장비학보에도 사심을 버려야 했다. 우수한 인력, 활용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와 시설이 완벽할 때 三位一體의 산물이 정확한 데이터이며, 생산성있는 연구실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문직도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에게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조직관리철학이다. 어떠한 형태이거나 어떠한 사유이거나 부담을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쌓아올린 노력이 우리 시험소의 전통으로 발전되기 바란다. 제도면의 개선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시험소는 단순한 기구와 기능을 가진 사업소와는 그 유형이 다르다.

기구는 본소와 3개지소로 되어 있고 기능도 試驗, 研究, 檢診, 病性鑑定, 屠畜檢査, 原乳檢査, 등 다양하다. 전문성을 요하니 本支所間의 人事權은 本所長에게 內部委任하여야 하고 支所長이나 本所事業課長 昇進對象者는 獸醫師이면 試驗所勤務 經歷有無는 따지지 않은 사고는 마땅히 시정되어 적어도 5년이상 勤務한 사람에 한해야 하고 신규 채용은 반드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우수인력발굴의 범위도 넓히고 선의의 경쟁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행정의 민주화요건이 권한의 하부기관이 양이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꼬투리만 잡으면 상부기관에서 행사하려드는 일들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앞으로의 技術行政 특히 獸醫畜産分野業務는 生産物의 需給調節과 經營面의 衛生管理指導分野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衛生管理指導分野는 家畜 衛生試驗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그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畜産經營者보다 理論이나 實技面에 앞서야 한다.

나는 시험소는 물론 우리 獸醫畜産分野 모두를 사랑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停年으로 退任하는 사람에게 사심이 있을 수 없다.

### 30. 福老人

親舊들이 나더러 福老人이라고 부러워한다. 老

人이란 말에 다소 抵抗感을 느끼게 하지만 노후가 순탄할 것이라는 뜻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본의 아니게 현직에서 물러나 퇴직후의 생활고로 출판사 외판원이 되어 전집물을 강매하거나, 保險會社 세 일즈맨이 되어 保險加入을 勸誘하지 않아도 된다.

生活은 년금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慶尙北道單位 獸醫畜産分野公務員으로서는 停年退任 제1호가 되며 錦上添花로 記念文集마저 발간해서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니 더할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정적으로는 喜壽(77歲)가 되시는 仲兄이 健康하시고 내가 入院해 있을 때 평소 즐겨먹는 회를 일식 식당에서 주문하여 형수씨와 같이 가지고 오시어 내가 맛있게 먹는 광경을 보시고 기뻐해 주셨고 퇴원후에는 흑염소 한마리를 약소주로 만들어 빠른 回復을 念願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고맙고도 자랑스러운 仲兄이 계시고 兄嫂氏는 내 健康을 念慮하시며 落淚까지 하시고 健康回復을 天主님께 祈求해 주셨다.

두텁고 고마운 兄弟間의 至極한 사랑에 감동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60세까지나 手上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정겨운 것인지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집을 화목하고 단란하다고 남들이 부러워한다. 아이들이 구김살없이 바르게 잘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 結婚해서 團樂하고 健全한 새 家庭을 꾸려 社會生活을 하고 孫子, 孫女 두고 男便 媳父母의 極盡한 사랑을 받으며 同氣間, 同婿間의 情誼는 至極하다. 고마운 일이다. 어찌 家兒와 女息뿐이겠는가. 조카와 姪女, 生姪, 生姪女도 아버지에게 쏟을 孝心을 나에게도 아낌없이 베푼다. 나는 家庭의으로 幸福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福老人이라고 함을 부끄럼 없이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지난날을 回顧해 보면 나는 家人에게는 罪人이다. 내가 社會物情에 너무 어두워 經濟的으로 富裕하고 貴하게 成長한 家人이 나와 結婚한後 窮塞하게 살았다. 公務員이 豪華롭게 살기를 바랄수는 없지만 내탓으로 苦生스럽게 살았으니 未安할 뿐이다. 얼마간의 遺産도 있었고 妻家의 도움도

많이 받아 그 財産管理만 잘 했어도 餘裕있게 살 수 있었다.

大鳳洞家屋의 競落, 芳川市場店舖賣却과 住宅買入外에도 結婚禮物인 金팔찌를 同期인 Y兄의 장사미친으로 家人 물래 건네주고 뒤늦게 눈치챈 家人을 놀라게 한 일들... 해도 너무했다는 自責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와같은 일들은 내가 3男1女中 막내로 태어나 過剩保護를 받아 父母兄弟에 依他心이 많았고 自主性이 不足한 性格탓이라 자탄하고 後悔도 했다. 그러나 內貧外富의 어려운 家計를 不平없이 꾸려준 內助에 힘입어 나는 큰 困難을 겪지 않고 公職生活를 繼續할 수가 있었다.

家人은 이토록 어렵게 家計를 꾸려나갔으나 天性 탓으로 나는 恒常 樂天的이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했고 어려운 親舊에게도 物質的으로 도우지 못하면 精神的으로라도 힘이 미치는데까지 最善을 다하여 도와왔다. 그리고 不正과 不義와는 妥協하지 않았으니 善行이라고 한것 같아서 대견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停年退任하는 날이 나의 제3의 人生이 새 出發하는 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보람있고 멋이 있는 제3의 人生을 마칠 수 있을까 하고 窮理를 해 보았으나 神通한 筈이 나오지 않는다.

조용히 讀書도 하고 기회가 되면 畜産을 하고자 하는 젊은 後繼者들에게 韓國사람의 자랑스러운 일을 심어주는 교육도 좋고, 여건이 허용되면 늘 구상

해 온 韓牛改良事業도 보람있는 일이겠다. 암소 몇 마리를 入殖하여 日本이 韓牛를 가지고 產肉量이 많은 肉用型으로 改良했듯이 韓牛改良을 小規模로나마 試圖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健康이 回復되면 道나 市의 自願奉仕者가 되어 道路邊에 심어진 管理狀態가 不實한 庭園樹를 剪枝도 하고 樹型을 바로잡아주어도 좋겠다. 그리고 公園이나 散策路에 버려진 쓰레기를 清掃하는 自然保護도 좋겠다. 自然保護는 지금까지 實踐해온 일이니 別다른 어려움이 없을것 같다. 健康했을때 散策한 앞산 매자골 散策路는 내가 스스로 정해둔 清掃區域이다.

散策 나갈때 恒常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서 清掃했다. 그 코스는 깨끗했다. 마음속으로 사람이 健康을 爲해 山에 오르니 사람도 自然을 健康하게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 信條다. 自然保護 即 自然健康을 實踐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그 동안 걸머진 그 많은 빛도 갚아야겠다. 크게는 내나라 적게는 45餘年 몸담아온 職場과 先輩, 同僚, 그 많은 恩惠 입은 분과 家人, 우리집안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恒常 感謝하게 살고 奉仕하고 健全하게 살도록 힘쓰려 한다. 나라의 繁榮과 民族의 無窮한 發展을 빌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빛을 갚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삶에 充實하면 親舊의 말처럼 나는 福老人이 될 것이다.